학술특집

21세기 중국… 공자의 마르크스 방문기

지난 8월 24, 25일 공자의 탄생지인 산동성 곡부에서는 '공자사상과 21세기'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 학술대회는 공자사상의 전통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또 21세기 인류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공자사상이 어떤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 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국 문화 논쟁 … 儒學은 아직 유용한가

서양 과학문명이 오늘날 인류문명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서양 문명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서양 문명이 야기하는 폐해를 극복할 지혜를 공자로부터 배울 수는 없을까.

본고는 동양문화의 바탕이라고 할 공자사상 혹은 유교가 서양문명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물음에서 기획되었다.

공자사상을 체계화한 유학이 과연 미래사회에 어울리는 가치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20세기 중국의 문화 논쟁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편집자)

전통유학 복귀아닌 새로운 문화형태 모색
문화유산·윤리회복 위한 사상으로 부각돼

신 용 철
(문리대 교수 사학)

중국문화의 핵심인 유교는 서구의 충격을 받은 이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하나의 세기적 논쟁거리였고, 계속 수난을 받아 왔다. 이것은 중국 전통의 재평가 내지 파괴의 측면에서나, 혹은 서구 문화의 압도적 충격이라는 양면에서 불가피한 역사적 전개 과정이었다.

1840년 아편전쟁 이래 밀어닥친 서구문화의 충격과 1850년의 태평천국운동이나 1898년의 변법운동으로 유학의 바탕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후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중국은 진시황 이래의 봉건제국이 무너지고 서구적 제도인 민주공화정의 출발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희망에 찬 출발과는 달리 중국 최초의 공화정인 중화민국은 내부 모순과 외부의 침략으로 혼란과 갈등 속에서 수습 불능의 좌초상태에 빠졌다.

이에 실망하고 당황한 중국인들은 그 실패의 원인을 그들의 전통문화인 유학의 본질에서 찾으려 했고, 20세기 초의 5.4신문화운동에서 "공자 사상을 타도하자(打倒孔家店)"로 나타났다. 이를 둘러싼 논쟁은 1921년 마르크스주의의 중국공산당이 성립되면서 더욱 가열되었고,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벌어진 사상 및 문화논쟁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하나의 새로운 시기를 맞게 되었다.

유학 재평가 시도

중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탄생으로 유학은 국가이념의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 후 공산주의 중국에서 그에 대한 가치논쟁이 계속되었다. 1966년 중국문화의 대격동인 문화대혁명으로 유학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고, 특히 1973년의 '비림비공'운동에서 대중운동과 정치 선전을 통하여 최악의 수난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기 등소평의 등장과 함께 추진된 개혁·개방 정책으로 실사구시적 현대화를 추구함에 따라 중국의 중요한 전통과 문화유산으로서 유학은 재평가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공자기금회가 창설되고 공자학회가 성립되었으며, 산동성 곡부에는 공자연구원도 설립되었고 '공자연구'란 학술잡지도 간행되었다. 특히 1989년 6월 4일의 천안문사태 이후 처음으로 거대한 국제학술회의가 바로 공자와 유학에 관해 10월초 북경과 곡부에서 개최되었던 것은 공자와 유교 혹권의 중요한 신호였다. 당시 강택민 총서기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을 접견하고 유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들이 '인민일보'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의 'Newsweek'는 그의 표지에 공자의 사진을 넣고 유교의 부활, 또는 '그 자신에 항거하는 중국(China against Itself)'이라고 표제를 달았다.

현대적 유용성 논란

최근에 와서 이 문제에 관해 수많은 학술회의들이 여러나라에서 개최되었다. 금년 여름 정신문화연구원의 국제학술회의, 요녕대학의 국제학술회의, 성균관대학의 학술회의, 산동성 곡부에서의 학술회의 등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써 유학이 다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덕정의 회복이란 차원에서 사회윤리가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유학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며,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유학은 아직도 유용한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20세기 동안 전개되었던 유학에 관한 평가 내지 비판을 통하여 그의 내용과 문제점, 혹은 전망 등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춘추·전국시대의 공자 이래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중국 및 동양문화의 핵심적 요소로서 정치·제도·문화·윤리 등에 절대적 영향을 주었던 유학이 서구의 침입 이후 혁명적 변화의 시기에 왜 수난을 받아야 했던가? 근대화나 민주제도의 가치를 위해 유학은 더이상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인가? 막스 베버의 연구 결과처럼 유학은 서구 경제의 기본적 틀인 자본주의에 장애가 되는 것인가? 변화하는 사회적 윤리로서 유학은 더이상의 유용한 수단이 될수 없었던 것인가?

이처럼 다양한 의문과 논란들은 중국을 침략하는 서구인에게서나, 중국의 미래를 우려하는 중국인들 스스로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질문이었다. 유명한 독일의 중국학자 Otto Franke는 "만일 유학으로서 무너져가는 중국을 구제하려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죽은 시체로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려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유교의 현대적 유용성을 부정하였다.

5·4운동 시기의 대사상가이며 중국공산당의 창건자인 진독수도 유학은 중국의 현대생활에 장애가 될 뿐이라고 공격했고, 당시의 유명한 반유교 투쟁가였던 오우는 유학을 "시람장아 먹는 윤리"라고 극단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중국사상 최대의 유교 비판자였던 명대의 이탁오가 비판의 선구자로서 찬양되었던 것도 바로 이때였다.

이러한 비판과 공격들은 모두 혼란과 좌절의 원인을 전통문화의 유학에서 찾으려 한 것이었고, 더이상의 유용성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의 국가이념으로 채택되면서 유학이 그와 어떻게 융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1950년대 중요한 연구와 논의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의 문화대혁명이나 1970년대의 비림비공운동에서 유학은 신경질적인 정치집단에 의해서 비참하리만큼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다.

1970년대 말 이래 중국은 다시 정치적·사회적으로 정상을 되찾으면서 그동안 낙후되었던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실사구시나 경세실용의 슬로건은 이미 유교의 전통속에서 우리의 귀에 익숙한 울어들이다. 중국적 사회주의도 전통의 회복과 중국 역사의 궤도를 따르는 과정을 거칠 것은 확실하다. 이 점에서 유학은 오늘날 중국에서 중요한 문화유산의 회복이나 그동안 혁명적으로 파괴된 사회윤리의 회복을 위해 중요한 애국과 도덕의 목표로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중만 유학도 근 한세기에 걸친 수난속에서 크게 변화되었을 것임은 명백하다. 우리나라 성균관의 유학자들이 산동성 곡부에서 공자 제사인 문화절 행사의 절차를 가르쳐 준다든가, 중국인들의 허물어진 도덕성 문제 회복에 삼대나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인 평가는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유학의 외형을 상당히 보존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면은 많이 변화였다. 한편 중국의 유학은 많이 파괴되었으나, 내면적으로는 얼마나 그의 본질을 유지하는가의 문제는 앞으로 중국 유학의 미래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한세기 동안의 격변의 와중에서 유학의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없어졌다면, 그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유학발전의 기본적 구조가 될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물론 이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와 조사가 있어야 할 문제이며 21세기 동아시아 문화의 전망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이 경우 유학은 단순한 학문의 차원이 아니라, 보다 더 넓고 깊은 중국의 근화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함은 물론이다. 어떤 사회나 국가에서도 수천년의 전통적 문화를 버린 예는 역사상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논리에서 보면 중국의 유학도 그 자체를 변형시킬 수는 있어도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변화하고 얼마만큼 달라지는가의 문제는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자와 맑스의 화해

진통 중국에서 2천5백여년간 형성되어 온 국가이념이었던 유학의 본질은 중국이 정열적으로 추진하는 현대화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한 아직도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혁명과 파괴, 비관과 공격이 계속되던 지난 한세기와는 달리 이제 중국은 새로운 질서와 열정난 발전을 지향해 가고 있다. 중국의 정치가나 학자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빈번하게 유학의 유용성을 현대사회에 적응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비판하고 공격하던 '조반유리(造反有理)'의 혁명성보다는 질서를 회복하고 교사나 어웃을 사랑하거나(仁) 또는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는 조화(天人合一)가 강조되는 것 등은 이러한 현대적 유용성을 발견하려는 노력이다.

유학은 중국 뿐 아니라 역사상 한국, 일본, 월남 등에서도 중요한 문화적 핵심이었다. 따라서 중국에서 유학의 새로운 형성이나 변화는 당연히 그의 주변 국가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중국처럼 유교를 공격할 필요없이 근대화를 추진했던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는 더욱 새로운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유교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중국보다 원형적으로 많이 유지하고 있으면서 또 나름대로 발전시켜 왔다. 일본의 미조구찌가 일본을 '유교적 자본주의', 중국을 '유교적 사회주의'라 규정한 것 등은 이러한 변화와 현실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다. 더욱이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그동안의 변화 역시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학이 중국에서 크게 파괴되었고, 우리가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고 그의 부흥을 바란다면 그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오히려 중국인들이 즐겨 쓰는 '파괴 위 질서'나 '유교 위 사회주의' 등의 표현처럼 질서나 윤리도덕 등 문화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1919년 이래 크게 손상되고 주도적 지위를 상실한 유학이 그의 자리를 차지했던 마르크스주의와 다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마르크스주의나 모택동 사상 또 유교는 그 전대로의 모습이 이미 아닌 달라진 형태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1백년의 대장정을 계획하는 중국적 사회주의 속에는 이러한 문화적 요인이 함께 작용할 것이며,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용이 껍질을 벗었어도 여전히 용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듯이, 유학도 중국문화에 있어서 지난 수천년간처럼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문화의 불필요하고 부정적인 껍질을 벗었다면, 그것도 유학의 전도에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 20세기 초 유명한 학자인 곽말약은 '마르크스의 공자방문기'라는 기발한 글 속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유학과 어떻게 접근하는가의 문제를 고민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의 입장에서 유학이 마르크스주의에 어떻게 조화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유학이나 문화의 차원을 넘어서 중국과 동아시아의 역사발전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을 흡수하는가, 아니면 중국이 마르크스주의를 흡수하는가의 문제처럼 19세기 중엽 이래 수난 속에서 변신을 거듭해 온 중국의 미래, 즉 21세기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를 압도했던 서구문화의 가치척도와 다른 동아시아 사회와 문화의 모습으로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고 있는 것이다.

인터뷰

"학문풍토 조성위한 공동체 건설 힘쓰겠습니다"

◇신현 대학원 초대 학단협의장

"국내에서 학문을 하는 학생들은 제약된 상황하에서 연구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학문공동체의 건설은 학문에 뜻을 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일 발족한 대학원 학술단체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신 현(정치학 박사과정)씨는 학단협의 발족의의를 '학문공동체'에 둔다. 학단협은 지난 10월 박사과정 대학원생 7명이 뜻을 모아 학단협결성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대학원 학술단체 대표들과의 총회를 거쳐 비로소 발족되었다.

학단협의 발족 계기에 대해 신 의장은 "과내 학회가 이름만 있고 활성화되지 못한점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했고 종학생회에서 학술행사를 전담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여러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학술분야는 학단협이 전담하고 총학생회는 학생복지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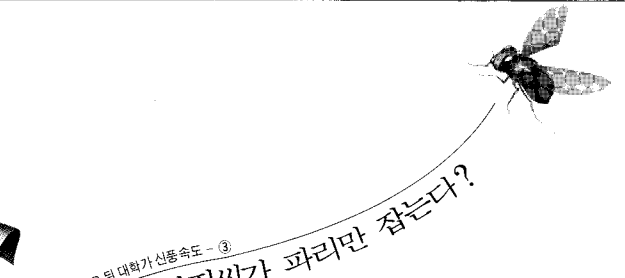
대학원생들의 학술분야를 책임지고자 하는 학단협의 사업계획은 자못 진지하다. 이제 한달도 채 안됐지만 학단협에서는 연합 심포지움 기획, 학술복강 개설, 과 학회 지원 등의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연합심포지엄은 학기중 공동연구주제를 선정하여 그 결실을 발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의장은 이 사업이 '유사학과 간의 공동연구를 통한 발표의 장'이 되리라고 전망한다.

또 방학 때는 대학원생들의 기능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컴퓨터, 한문 특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학회 연구비 지원은 겨울학기중에 연구 과제를 수렴하고 계열별 지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한 후 선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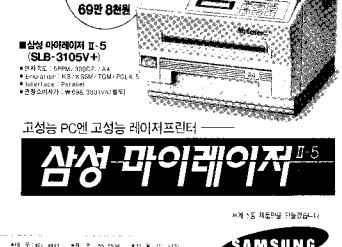
끝으로 그는 "사기중심적 사고를 주변상황과 미래에의 전망을 통하여 여과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상대적 의견에 불과합니다. 개인 이익을 공동이익과 접목시킬 때 진정한 학문풍토조성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대학원생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했다.

〈전재연 기자〉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삼성



리포트 철이 오면 레이저프린트 룸이 입고,
레이저프린터가 있는 학교앞 프린터집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깨끗하게 뽑아서 제출하니까 교수님께 성의도 보일 수 있고, 그만큼 점수도 잘 따게 마련이니까…
그런데 언제 부터가 삼성 마이레이저를 뽑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늘면서 그 잘나던 레이저프린터집도 한산해지기 시작했다. 주인 아저씨는 파리만 날리는지 왔다리 갔다리 하동만 하시고…
하기야 싼돌이인 나까지 그만한 가격이면 투자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나오자마자 마이레이저를 샀으니…
레이저로 쓰니까 그림도 가는 선도 모두 또렷또렷, 초스피드 — 게다가 호환성까지 완벽!
번지고 흐리고 들떠보이는 잉크젯프린터와는 그 차원이 달랐다.
프린터집 아저씨한테는 고약한 내석일지 모르나, 우리에게 있어서 마이레이저는 둘도 없는 복덩어리이다.



■삼성 마이레이저 II-5 (SLB-3105V+)
• 인쇄속도 : 5PPM / 1000P / A4
• 인쇄해상도 : KS / KSSM / TGM / PCL 4, 5
• 에뮬레이션 : Pressen
• 전용프린터지 : W-0.66, 200(1VA) 월픽

더욱 새로워진 삼성마이레이저 SLB-3105V+의 3대 기능혁신
혁신 1 속도개선 : PCL 4.5 새롭으로 DOS, WINDOWS 상에서 50~100% 속도 향상
혁신 2 원터치 줄 기능 : B4 → A4 (80%) 축소, B5 → A4 (120%) 확대 등을 원터치로 해결
혁신 3 그린기능 : 프린터 대기시 30W 의 최소전력으로 자동조절! 최소 150W의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줄임.

전화 한통화면 업그레이드가 간단히!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및 프린터, PC대리점에 전화로 접수만 하십시오.
서비스요원이 즉시 방문, 롬카트 설치로 간단히 업그레이드를 해드립니다.
설치비 : ₩10,000

고성능 PC엔 고성능 레이저프린터
삼성-마이레이저 II-5

C&C COMPUTERS AND COMMUNICATIONS
■ 대리점 (SLB-3105V+)
■ 구매상담실 ■ 본점 : 080 002 3000 ■ 지점 : 080 002 3000 ■ 스페셜센터문의 : 02-258-2813
■ 본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대한빌딩 5층 (4층)
■ 본사 FAX 번호 : 259-2949~53

SAMSUNG 삼성전자